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경제적, 사회·제도적, 사상적 배경)을 묻는 문제
2.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내용 일치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3. '허생과 아내', '허생과 번 씨', '허생과 이완 대장'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
4. 이 작품의 결말의 특성과 효과를 묻는 문제(서술형에서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5. '빈 섬'의 공간적 의미를 묻는 문제

[지문 분석]

허생('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과 신혼 상인 계층이 등장하는 등 신분 질서가 동요하였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인물의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은 목적동(오늘날 서울에 있던 동네로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서울'임을 알 수 있음.)에 살았다. 목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사립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허생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허생은 자기 집안을 돌보는 데 무관심했음.) 그 아내가 샅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허생의 아내는 허생 대신 생계를 꾸려나갔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허생의 아내는 독서의 목적을 입신양명이라고 생각함.)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허생은 독서의 목적을 자기 수양이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장인바치(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장인(匠人)'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겠습니까?"][(/: 사농공상 중에 무능한 '사(士)'보다는 유능한 '공(工)'과 '상(商)'이 더 낫다는 아내의 생각 = 작가의 생각)

"장사야 본시 밀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허생은 장사를 배우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왈각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 하는 게요?"(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사고를 비교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은 비실용적, 관념적 사고를, 허생의 처는 실용적 실리적 사고를 가졌다는 내용이 옳은 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십 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칠 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 버렸다. (허생은 본래 기약했던 독서 기한을 채우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발단: 아내의 질책을 들은 허생의 가출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변화한 운증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 씨(변 씨의 인물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변 씨는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민으로, 허생이 변 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는 것을 통해 당시 시대의 신분' 질서의 혼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금년도에 변 씨의 특성과, 변 씨와 허생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물들 간의 사건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만나 길게 읊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 금을 빌릴까 하오.”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만 큰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취함. 허생의 비범함이 드러남.)

하니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 금을 내주었다. (몰락한 양반인 허생이 변 씨에게 돈을 꾸는 모습을 통해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은 끝내고 감사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들과 와 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견 영락없는 비렁뱅이(‘거지’를 낮잡아 이르는 말.)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께죄죄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물었다.(거지처럼 보이는 허생에게 두말없이 큰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람.)]([:자제들과 손님들은 허생의 걸모습만으로 인물을 평가함.])

“대인께선 저이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 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 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준 것에 의문을 제기함.)”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무릇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께죄죄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처음 보는 허생에게 큰돈을 빌려 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함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서술형 문제의 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인물의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 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변 씨의 대범한 성격을 보여 줌.)”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생이 안성에 거처를 마련한 이유: 당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연회나 제사에 쓰이는 식재료)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사재기를 함.)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과일들을 볼 때 연회와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의 풍속을 중시했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사건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연회나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관점이 드러남.)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조선 시대 성인 남성들의 필수품이었던 것, 탕건 등의 재료임.)**]을 다 거두어들였다.][**말총과 과일들을 사들이는 행위를 통해 허생이 당시의 경제 구조의 취약점을 시험해 보았다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행위의 이유와 그로 인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전개 1: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물건을 사재기하여 큰 이익을 거둔 허생

허생이 **늪은 뱃사공(‘늪은 뱃사공이 우연히 발견한 곳이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공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빈 섬은 허생이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했던 공간이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빈 섬의 공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살기 좋은 곳, 이상향의 모습)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섬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빈 섬에서 허생이 땅이 작아 자신의 큰 뜻을 펼치기에 한계를 느껴 아쉬워했다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빈 섬을 본 허생의 정서가 어떠한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인물의 정서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늪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덕(德)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허생의 유교적 사상이 드러난 구절. 허생이 비록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을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의 직분을 다하기 위함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함.)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국내에서의 공간 이동: 서울→안성→제주→(국외 ‘빈 섬’→)변산반도)**에는 도적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도적 때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짓.)**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달랬다.

“천 명이 천 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게 한냥씩 돌아가지요.”(매우 적은 이익)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습니다.”

“가진 발똥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자신들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시오?”(‘서민들은 최소한의 삶의 기반조차 잃어버리고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 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을 뿐입죠.(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없음.)**”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런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허생이 도적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함.)**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도적들은 허생의 말을 믿지 않음.)**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삼십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허생이 한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됨.)**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허생이 가져 온 돈을 보고 마음이 변함.)”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 금을 넘지 못했다.(돈 백 냥을 짊어지지 못하는 모습에서 도적들이 오랫동안 굶주린 백성일 뿐임을 암시함.)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백 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는 사건에 인과적 필연성을 부여함.)**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백 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이천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허생과 도적이 모두 약조를 지킴.)**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 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허생이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의 지배층의 무능함을 비판하였다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허생의 행위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사회 현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비옥한 땅임을 알 수 있음.)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 가서 팔았다.(일본의 장기는 당시 매우 번성했던 국제 교역지로, 허생이 장기에 가서 교역을 한 것은 작가의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외에서의 공간 이동: 빈 섬→장기) 장기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흙하고**(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이상세계를 시험해 봄.)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이상국을 세울 때 기초가 되는 것: 문물과 제도) 하였느니라.][:‘**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학문 수양이 부강강병에 있어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다.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허생은 빈 섬에서 이용후생을 내세우고 유교적 예법을 없애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예의범절을 증시하였으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경제 규모가 작은 곳이므로 많은 돈이 불필요하다고 여김.)

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글을 아는 자들이 훗날 섬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허생이 한 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 전개 2: 빈 섬에서 이상국을 실험한 허생

물론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십만 냥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 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문자 변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허생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줌.) **혹만 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변 씨의 오해)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인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인식을 묻는 문**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허생(‘_____으로 _____한 양반과 _____ 계층이 등장하는 등 _____ 질서가 동요하였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인물의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살았다. 목 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 나무를 향해서 사립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허생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허생은 자기 집안을 돌보는 데 _____ 했음.) 그 아내가 삶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허생의 아내는 허생 대신 _____를 꾸려나갔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허생의 아내는 독서의 목적을 _____이라고 생각함.)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허생은 독서의 목적을 _____이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장인바치(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장인(匠人)’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겠습니까?”([사(士)보다는 유능한 ‘공(工)’과 ‘상(商)’이 더 낫다는 아내의 생각 = _____의 생각])

“장사야 본시 밀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허생은 _____를 배우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어쩌서 도적질은 못 하는 게요?”(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사고를 비교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은 _____, _____ 사고를, 허생의 처는 _____ 사고를 가졌다는 내용이 옳은 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십 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칠 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 버렸다.(허생은 본래 기약했던 독서 기한을 채우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금년도에 내용 일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발단: 아내의 질책을 들은 허생의 가솔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변화한 운증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소설, 한문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조선 효종 때(17세기 중반) • 공간적: 국내(서울, 안성, 제주, 변산반도 등), 국외(빈 섬, 장기도)
제재	'허생'이라는 선비의 비범한 재주와 기이(奇異)한 행적
주제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 촉구
특징	•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고 이용후생과 무국강병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빈 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상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2. 글의 구성

발단	아내의 질책을 듣고 허생이 집을 나감.
전개	허생이 사재기를 통한 상행위, 빈 섬에서 이상국 건설 시험을 함.
위기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시사 삼책을 제시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절정	허생이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함.
결말	허생이 종적을 감춤.

3.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

허생	허생의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음. 글 읽기에만 열중하며 학문의 완성을 추구함. 독서의 목적이 자기 수양이라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능한 가장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함.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함. 독서의 목적이 입신양명이라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실용적 사고, 관념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 사고, 실리적 사고

4.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

허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만, 돈을 벌리면서도 당당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음. →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표
변 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 처음 보는 허생에게 큰돈을 빌려 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함. →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 허생을 거지로 여긴 자제와 손님들과 달리 '간단한 말,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 등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여김. →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비범한 안목으로 인물을 평가함.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내신암기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고□ 소설, 한□ 단편 소설
성격	비□적, 풍□적
시점	□□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조□ 효종 때(17세기 중반) • 공간적: 국내(서□, 안성, 제주, 변□ 반도 등), 국외(□ 섬, □□도)
제재	‘허□’이라는 선비의 비□한 재□와 기□(奇異)한 행□
주제	지□층인 사대부의 무□과 허□의식 비□, 새로운 삶의 각□과 실□ 추구
특징	• 비□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 • □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폐□을 비□하고 이□후□과 부□강□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 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2. 글의 구성

발단	아내의 질□을 듣고 허생이 집을 나감.
전개	허생이 사□□를 통한 □행위, □ 섬에서 이□국 건설 시험을 함.
위기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시사 □□을 제시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절정	허생이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함.
결말	허생이 종□을 감춤.

3.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

허생	↔	허생의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에도 경□적으로 무□□하고 생□에 관심이 없음. • □ 읽기에만 열중하며 학□의 완성을 추구함. • 독서의 목적이 자기 □□이라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 가□을 대신해 생□를 유지함. • 남편에게 돈□□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함. • 독서의 목적이 입□□명이라고 생각함.
비□□적 사고, 관□적 사고		실□적 사고, 실□적 사고

4.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

허생	• 경□적으로는 무□하지만, 돈을 빌리면서도 당□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음. →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한 ‘□□ 계층’을 대표
변 씨	•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 처음 보는 허생에게 큰돈을 빌려 줄 만큼 배□가 크고 대□함. → 조선 후기 새롭게 성□한 ‘□□ 상인 계층’을 대표 • 허생을 거□로 여긴 자제와 손님들과 달리 ‘간단한 말,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 등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여김. → 사람의 □면을 꿰뚫어 보는 비범한 안□으로 인물을 평가함.

5. 허생이 이상향을 만들고자 한 공간인 '빈 섬'

'빈 섬'에 도착한 허생이 탄식한 이유	섬의 크기가 작아 자신의 □ 뜻을 펼치기에는 한□가 있다고 생각해 아□□을 느낌.
'빈 섬'에서 실현한 이상향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을 기본으로 함. • □업을 중시해 외국과 교□을 함. • 식□을 비축하고 □를 축적함. • 굶주린 빈민들을 구□함. • 예□□절을 중시함.

6.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아□	사회의 근간인 가족 공□□를 이룰 수 있게 함.
□	삶의 기본적인 터□을 마련해 줌.
소, □, 밭	생□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적 기□을 마련해 줌.

↓

양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권층이 백□들을 위해 무엇을 실□해야 하는지 제시함.

7. 당시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

당시 조선의 집권층은 변사의 도적 떼들을 토벌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허생은 □적 □에게 □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준 후 그들을 설득해 '□ 섬'으로 데려간다. 이를 통해 □실의 □제를 □결하는 허생의 □월한 □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권층의 □능함을 □회적으로 □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

- 막대한 부를 얻었음에도 □신의 □요를 중시하며 □사치로 여겨지는 것을 □쾌하게 여김.
- □제, □업, □실 문제의 □결을 □조하면서도 자신은 □대부로서의 □체성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작가가 □농공상의 □급 □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9. 변 씨의 역할

변 씨의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 돈을 □려줄지 어떻게 알았는가? • 왜 □주를 뺏내지 않고 묻혀 사는가?

↓

변 씨의 질문에 대해 허생이 지금까지의 행동의 □유와 □거, 현실에 대한 □판적 □식을 밝힌다는 점에서 변 씨는 허생이 자신의 □치관을 드러내도록 만들.

10.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경제적 배경
- 취약한 □□ 구조, 백성들의 피□한 삶
• □□업이 장려되지 않고 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가 침체됨.
• 서민들은 최소한의 삶의 기□조차 잃어버리고 유랑민이나 도□이 되어 살아감.

사회·제도적 배경 - □□ 질서의 동□
• 허생처럼 경□적으로 몰□한 양반, 변 씨처럼 경□적으로 성□한 평민이나 중인이 등장함.
• 서민 의식이 향상하면서 지배층의 무□과 허□가 비□·풍□의 대상이 되기 시작함.

사상적 배경 - □학사상과 □□론의 대두
•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업을 장려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실□적 학문이 등장함.
• 이□□생의 측면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론이 대두함.

11.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인 태도

긍정적	[사회적·공적 측면] 백성들의 삶을 풍□하게 하고, 현실의 모□과 문□를 해결해 줌.
부정적	[개인적·사적 측면] □를 살찌울 수 없고 정□을 괴롭히는 것으로 재□이 될 수 있음.

12. 허생과 장사치들의 상행위의 차이

허생	장사치
□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점(사재기)하여 □ □익을 취함.	↔ 큰돈을 쪼개서 □러 □건을 조금씩 사들여 □은 □익을 취함.

□재기가 나라를 해칠 것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허생의 □행위는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제 □편을 □힘하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남.

13. 허생의 운명론적 사고방식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까닭
자신이 가진 □주보다는 □늘의 □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음.

14. 능력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하는 현실

역사적 인물의 예	□ □력을 가졌으나 펼치지 못한 인물들 (조성기, 유형원)
-----------	----------------------------------

허생 자신	↓ 그들처럼 □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짐.
-------	----------------------------------

□발을 외치면서도 □극적인 □재 □용을 하지 않는 □권층의 □순된 행위를 □판함.

15. 허생이 당대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시사 삼책

- □극적인 □□ 등용 →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현실 비판
- □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 → □□론의 허구성 지적, 훈□과 권□들의 □□권 비판
- □나라와의 교□ 촉구 → 사대부들의 허□□식과 □□론의 □□성 비판

16. 허생과 이완 대장의 입장 차이

허생의 계책에 대한 이완의 입장

- 1계책은, 임□이 신□에게 몸을 낮출 수 없으므로 불가함.
- 2계책은, 종□과 훈□ 권□들이 □□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함.
- 3계책은, 변□과 호□이 사대부들의 예□에 어긋나므로 불가함.

허생

실□를 중시하여 과감하면서도 □극적인 대책을 제시함.

이완

명□을 중시하여 임금과 사대부의 체□과 예□을 지키려 함.

17. 미완의 결말 구조

현실의 문□, 인물 간의 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하는 설□적 결말, 미완의 결말, 암□적 결말의 구조

- 허생의 가치관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수□되기 어려운 급□적인 것임을 암시함.
- 허생의 □□다운 풍모를 부각함.
- 여□을 남기고 독자들의 궁□□을 유발함.

18. 허생을 통한 작가의 현실 비판

허생의 행적	← 반영	작가의 현실 비판
□ 읽기만 좋아하고, 먹고사는 것과 관련한 실□적인 일에는 무관심함.		현실과 동떨어진 사대부의 관□□과 무□□을 비판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사□□를 하여 나라 □□를 흔들고 큰돈을 벌.		• 나라의 취□한 경□ 구조 비판 • 양반 계층의 허□□식 비판
도□이 된 양민들을 □ 섬으로 데리고 가 생활 □□를 마련해 줌.		• 지배층의 무□을 비판 • 이□□□생 정책의 부재 비판
이완 대장에게 세가지 계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극적인 인재 등용, 집권층의 허□□식 비판 • 사대부들이 외치는 □□론의 허□□ 비판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내신 암기 TEST 2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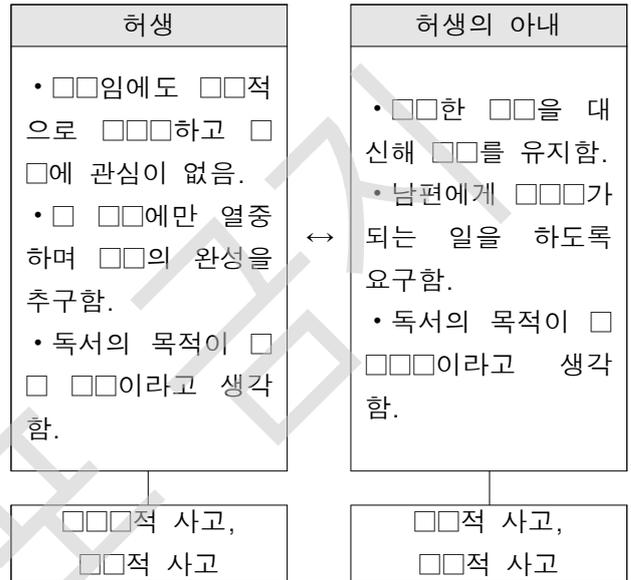
1. 제재 개관

갈래	□□ 소설, □□ 단편 소설
성격	□□적, □□적
시점	□□□ □□ 시점
배경	• 시간적: □□ 효종 때(17세기 중반) • 공간적: 국내(□□, 안성, 제주, □□ □□등), 국외(□ □, □□□)
제재	‘□□’이라는 선비의 □□한 □□와 □□ (奇異)한 □□
주제	□□□□인 사대부의 □□과 □□□□ □□ □□, 새로운 삶의 □□과 □□ 추구
특징	• □□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 • □□□□을 바탕으로 당대 □□ □□의 □□을 □□하고 □□□□과 □□□□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 □’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 □□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2. 글의 구성

발단	□□의 □□을 듣고 허생이 집을 나감.
전개	허생이 □□□□를 통한 □□□□, □ □에서 □□□□ 건설 시험을 함.
위기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 □□을 제시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절정	허생이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함.
결말	허생이 □□을 감춤.

3.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



4.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

허생	• □□적으로는 □□하지만, 돈을 벌리면서도 □□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음. →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한 ‘□□ □□’을 대표
변 씨	•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 처음 보는 허생에게 큰돈을 빌려 줄 만큼 □□가 크고 □□함. → 조선 후기 새롭게 □□한 ‘□□ □□ □□’을 대표 • 허생을 □□로 여긴 자제와 손님들과 달리 ‘간단한 말,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 등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여김. → 사람의 □□을 꿰뚫어 보는 비범한 □□으로 인물을 평가함.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내신 암기 TEST 3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___ 소설, ___ 단편 소설
성격	___ 적, ___ 적
시점	___ 시점
배경	• 시간적: ___ 효종 때(17세기 중반) • 공간적: 국내(___, 안성, 제주, ___ 등), 국외(___, ___)
제재	'___'이라는 선비의 ___한 ___와 ___(奇異)한 ___
주제	___인 사대부의 ___과 ___ ___, 새로운 삶의 ___과 ___
특징	• ___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___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 • ___을 바탕으로 당대 ___을 ___하고 ___과 ___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___'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___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

2. 글의 구성

발단	___을 듣고 허생이 집을 나감.
전개	허생이 ___를 통한 ___, ___에서 ___ 건설 시험을 함.
위기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___을 제시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절정	허생이 이완 대장을 크게 질책함.
결말	허생이 ___을 감춤.

3.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

허생	↔	허생의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임에도 ___적으로 ___하고 ___에 관심이 없음. • ___에만 열중하며 ___의 완성을 추구함. • 독서의 목적이 ___이라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한 ___을 대신해 ___를 유지함. • 남편에게 ___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함. • 독서의 목적이 ___이라고 생각함.
___적 사고, ___적 사고		___적 사고, ___적 사고

4. 허생과 변 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

허생	• ___적으로는 ___하지만, 돈을 빌리면서도 ___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음. →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___한 '___'을 대표
변 씨	•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 처음 보는 허생에게 큰돈을 빌려 줄 만큼 ___가 크고 ___함. → 조선 후기 새롭게 ___한 '___'을 대표 • 허생을 ___로 여긴 자제와 손님들과 달리 '간단한 말,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이 없는 기색' 등을 보고, 허생이 재물욕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고 여김. → 사람의 ___을 꿰뚫어 보는 비범한 ___으로 인물을 평가함.